

행복한 금요 편지

국정비리를 보는 볼록렌즈와 오목렌즈


홍성남
시인¹⁾

사람의 마음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흐르면서 보이는 사물은 볼록렌즈와 오목렌즈 같은 두 마음에 비친다. 그 마음은 살아온 세월의 깊이와 갖는 견해에 따라 볼록렌즈와 오목렌즈로서 교차하면서 작용한다. 사람의 언행은 눈앞에 펼쳐진 사물이 어떤 렌즈로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볼록렌즈는 가운데가 두껍고 가장자리는 얇다. 물체와 가까이 있을 때는 크고 바르게 보이며 멀리 있을 때는 작고 거꾸로 보인다. 반면 오목렌즈는 가운데가 얇고 가장자리는 두껍다. 물체와 가까이 있을 때는 작고 바르게 보이며, 멀리 있을 때는 더 작고 바르게 보인다. 렌즈에 따라 사물이 다르게 보이는 것은 모양에 따라서 빛이 굴절하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 사회는 볼록렌즈의 작용이 강하다. 내 안의 것은 작고 밖의 것은 크게 본다. 일상에서 상가 밖 거리에 펼쳐진 상품들이 그 현상의 하나다. 판매할 물건을 거리에 내 놓는 것과 그렇지 않는 차이는 주인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볼록렌즈의 시각을 가진 주인은 가게 안의 물건을 하나라도 더 밖으로 내 놓으려고 애쓴다. 반면 그렇지 않는 주인은 오목렌즈의 눈길로서 손님을 가게 안으로 끌어당긴다.

1) 행복편지를 기고해 주신 홍성남 시인은 강북경제연구소 소장을 직임하고 계시며, 저서로는 서울공화국을 움직이는 리더들 외 다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상의 렌즈에 최근 하나의 빛이 투영되었다. 대통령이 포함된 국정비리이다. 이 사건은 볼록렌즈로 보였다. 사는 게 답답함이 더 많은 현실에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존경과 신뢰 보다는 타박과 폄하의 대상으로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왔다. 그 마음은 분노로 커져 분출하려는 용암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순간 오목렌즈에 의해 보이면서 분출되었다. 삶이 편해 정치와 대통령의 존재가 묶어져 있을 때는 작게 보이던 것이 어렵고 힘이 드니 크게 보였다. 물체와 가까이 있을 때 작고 바르게 보일 뿐만 아니라 멀리 있을 때 더 작고 바르게 보이는 오목렌즈는 작용하지 않았다. 한 쪽 눈을 가린 국민들은 사건의 진실을 볼록렌즈와 오목렌즈로 보려하지 않았다. 언론도 볼록렌즈에 의해 키워진 국민의 분노를 영업과 홍보 전략으로 삼았다. 국가 안정과 사회 안전은 뒷전이였다. 국민들은 오목렌즈의 시각을 가진 주인의 의해 쇼윈도우 밖에 진열된 상품들처럼 광화문 광장으로 몰려나갔다. 탄핵과 하야를 주장한다. 청와대를 둘러싸겠다는 물리력을 보이겠다며 주먹을 모로 비켜 쫓는다.

'이게 국가냐' 하던 말은 '대통령 하야'로 바뀌었다. 이는 볼록렌즈만의 시각이 보여준 결과이다. 이제는 우리에게 오목렌즈의 시각이 필요하다. '이게 국민이냐'와 '국가 질서와 안정'을 생각할 때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국가의 국민으로서 통일과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법질서 준수와 절제의 미학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포함된 국정비리는 국가기관인 검찰과 국회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질서와 법절차에 의해 밝혀지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지구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만이 존재한다면 문제를 푸는 방식이 달라도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반도국가로서 4대 강국의 호전적 퍼즐게임의 대상이 되어 있고, 더구나 70년 동안 적화통일을 국시로 내건 북한을 상대로 하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광장의 분노로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없다.

통계학인 관상에 이런 말이 있다. "부모로부터 골격과 기질을 잘 받아 훌륭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국가의 변란과 천재지변 앞에는 물거품이다." 대통령이 포함된 국정비리는 이번 기회에 말끔히 해결되어 향후 재연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문제를 푸는 방식이 통일과 선진화를 이루는 틀로 가야한다. 그러기 위해 국민과 언론은 검찰과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제 역할을 하면서 오목렌즈의 시각으로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선행복포럼에서는 '행복한 금요편지'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